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젠가 서로에게 신년 인사로 ‘부자 되세요’, ‘뜻하시는 일 다 이루세요’ 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유일한 지상과제인 것처럼 집단최면에 사로잡히고 강박관념에 눈 먼 현실의 한 단면이 그렇게 드러났다.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착각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부자 되기’ 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는 삶’ 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느님께 희망을 둘까?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자.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도록 명하신다. 여기서 ‘축복’ 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염원하는 ‘물질의 풍요’ 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1독서는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는가?’,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를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이어서 2독서에서는, 생명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선물로써 허락된 것이니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숙고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매일의 허락된 일상이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의 삶을 더 중요한 일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의 풍요’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영육간 건강 돌보기, 하느님 친구, 이웃 가족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기’ 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불행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2독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지금 살아있음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가?’,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이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 애쓰는 것인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사람의 아들’ 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신다. 정리하면, 우리는 각자 소명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소명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 ‘사람의 아들’ 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사람의 아들’ 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설 명절에 행복과 불행을 경험한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은 큰 행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통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면 서로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더 나눌 대화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어색함은 그동안 가족, 친지들의 관계가 어떠한 지를 드러낸다. 서로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편한 침묵은, 우리가 삶을 잘못 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한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조상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조상들과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오늘의 내가 있음이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내가 살아가며 추구하는 가치를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은 전혀 다른 체험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올 해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 주어야 할 축복의 내용이 아닐까?

글/ 서동조(유스티노) 신부 상촌성당 주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십자가란 고통의 상징이자 은유입니다.

"저놈은 내 십자가야"하고 말했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내 고통의 원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고통만 생각하지 고통의 의미와 가치는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의미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의 의미보다는 고통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거나 체념하고 등에 지고 가야 할 운명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고 지고 가지 않으면 될 고통의 바위, 징벌의 험산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겁고 힘에 부쳐 다른 사람이 대신 좀 지고 갔으면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강대에 계신 송봉모 신부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합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왕 자기 십자가를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등에 지고 가는 것보다 품에 안고 가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아기를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젖을 먹이는 아기와 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십자가의 무게는 똑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보다

더 작고 가볍다고 느낍니다.

저도 다른 사람처럼 좀 가벼운 십자가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속엔 제가 원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제 자신이 모두 저의 십자가입니다.

제 자신만큼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라는 십자가를 품에 꼭 안고 가야 하겠습니까.

글 : 정호승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2월 5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15.00
교 무 금 : \$ 860.00
감 사 금 : \$ 50.00
특 별 : \$ 75.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 5 (\$5585.00)
합 계 : \$ 1720.00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외양적으로 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가만히 있을 터이니 어서 나를 죽여주소”

－ 성녀 아가타

본 당 소 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오늘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자 발렌타인날입니다. 서로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새날을 시작하세요

(오늘 미사는 설날미사로 합니다. 단, 향이나 차례상 없이 미사만 하되, 조상님을 위한 기도 지향 봉헌금(연미사 지향)은제대위에 올려 봉헌하는 예식으로 합니다.)

◎ 재의 수요일

17일 재의 수요일 예식은 본당 사정으로 인해 St. Anthony Daniel 성당이나 가까운 성당을 통해 미사참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꾸르실리스따 지도자 학교

▶일시:2월 20일(토), 27일(토) 10:30-17:00

▶장 소 ; 한맘 성당 세미나실

▶참가비 ; \$10/day

▶문 의 : 김현태 울뜨레야 간사

◎ 청소년부 홀피안내

청소년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소 : <http://kwpaul.com/youth>

◎ 바뇨의 성모 기도 2월 모임 안내

▶모임 :19일 오후7시 이은희 이벳따 자매님집

▶기도 지향을 접수합니다.

신청 : 한택중 막시모 (tj1234@catholic.or.kr)

◎ 3월 사목회의 안내

▶2월 28일 주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사목위원과 구역장, 단체장도 참석바랍니다)

◎ 첫영성체반 모집 안내

대상은 Grade 3 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은희 이벳따 자매☎ 519-579-0154

◎ 2월 구역모임 안내

▶키치너 20일(토) 7시 교육관

▶브랜포드 19일(금) 7시 이주현 형제덕

▶워털루 4구역 20일(토) 6시 구본우 형제덕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아이티 난민 구제 현금 모금 안내

동참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금 모금액 누계 : \$756.00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

(선도자 명단

2월 14일- 교육청소년분과장 노동원 라자로

2월 21일- 관리분과장 이명희 스테파노

2월 28일- 워터루 1구역장 류무열 레오비노)

* 목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안내/현금 담당

▶3월 : 워털루 2 구역

▶4월 : 워털루 3 구역

“성당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의 소리 ⑦

가끔 친구가 미워 성당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평소에는 친한 친구이지만,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나에게 장난을 치거나, 잘난 척을 할 때면, 마음속으로는 너무 밉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언젠가 친구랑 만나서 같이 성당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5분, 1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혼자 가게 되었다. 그날 그 친구는 성당에 오지 않았다. 다음날 물어보니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못 온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그 친구가 미웠다. 성당에 못가면도 미리 전화를 주면가 하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약속도 안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나는 결국 시간 낭비만 한 것이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느꼈다. 처음에는 친구가 빨리 왔으면 하고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짜증으로 변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와 함께 성당에 다니는 것도 싫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나 친구가 미웠지만 친구가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친구가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재미없다. 평소에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낸다.

그 때 친구를 미워했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지만 가끔씩 친구가 미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르가리타 | 초등부 주일학교 5학년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6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07호

2010. 2. 14.

연중 제 6주일 (설)

해설 이 정숙

차주 해설 김 손권

성 가

입 당 (423) 천년도 당신 눈에

봉 헌 (515)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성 체 (500) 평화의 하느님

퇴 장 (407) 하나이신 천주

화 답 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후 묵상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입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
을 청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기도와 성사 생활에 충실하며, 정성으로
성체를 모실 것을 다짐합시다.

독 서

2월 14일 안정희 안미옥

2월 21일 장명길 장용경

2월 28일 이명희 이상희

봉 헌

2월 14일 박용대 박명옥

2월 21일 안정희 안미옥

2월 28일 장명길 장용경

(현금 담당 : 워털루 1구역)

복 사

2월 14일 최예슬 강수현

2월 28일 구한힘 김건우